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22



# Contents

※ 2026.03.19.(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3.12.~2026.03.18.)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 탄소중립 분야 1

- 부산서 물산업 박람회 개막...AI·탄소중립 기술 한자리에(2026.03.18) ..... 1
- 탄소중립기본법 등 환경 분야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03.15) ..... 1
- 한-IEA 에너지효율 협력 워크숍 개최...에너지안보·탄소중립 공조 논의(2026.03.16) ... 2
- 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불록형 감축 경로' 포함 논란 확산(2026.03.16) ..... 2
- 거제시, 3월 말까지 찾아가는 탄소중립 홍보부스 운영(2026.03.18) ..... 2
- 전주시, 공공부문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탄소중립 실천 선도(2026.03.18) ..... 3
- 충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 739명 선착순 모집(2026.03.16) ..... 3
- 삼척시, 탄소중립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2026.03.16) ..... 4
- 인천시, 시민 참여 기반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 추진(2026.03.15) ..... 4
- 청도군, 탄소중립·녹색경제 대전환 선언 기념행사 개최(2026.03.15) ..... 4
- 홍성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26일까지 접수(2026.03.16) ..... 5
- 대전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6,112명 선착순 모집(2026.03.13) ..... 5

### ■ AI 분야 6

- 경주시, 'AI 미래 모빌리티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 추진(2026.03.15) ..... 6
- 진천군, AI·XR 기술 활용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2026.03.14) ..... 6

- 전남도, 섬 지역 어르신 대상 AI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2026.03.15) .....7

##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 탄소중립 분야 7

-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국가산단 탄소중립 산단 전환 본격화(2026.03.17) .....7
- 의왕도시공사, 탄소중립 경영 성과로 '저탄소 인증' 획득(2026.03.17) .....8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현장 방문(2026.03.13) .....8
-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의체, 2026년 원팀 다짐(2026.03.13) .....8

##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9

### ▪ 탄소중립 분야 9

- 월스기념병원, 제로퀘스트와 업무협약 체결...탄소중립 실천 본격화(2026.03.17) .....9
- 현대건설, 8년 연속 CDP '명예의 전당' 수상...탄소중립 이행 역량 입증(2026.03.12) 10
- 전남교육청,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개교 선정...생태전환 교육 본격 추진(2026.03.13) 10

### ▪ AI 분야 11

- DH그룹, 전북 부안에 피지컬AI·방산 제조기지 조성...1,500억 원 투입(2026.03.13) ....11
- 주요 AI 챗봇, 폭력 행위 부추기는 답변 제공...안전성 논란(2026.03.12) .....11
- AI 워게임 시뮬레이션서 100% 핵 위협 발생...알고리즘 구조적 문제 지적(2026.03.16) ...12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b>☐ 부산서 물산업 박람회 개막…AI·탄소중립 기술 한자리에(2026.03.1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6)'를 개최. '지능형 물관리로 여는 푸른 미래'를 주제로 216개 기업이 참여해 AI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에너지 절감형 탄소중립 기술 등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 물산업 전문 전시회.</li> <li>- 해외 구매처 60여 개사를 초청한 물산업 수출·구매 상담회를 비롯해 한·미 물기술 국제 콘퍼런스, 국제 하수감시 세미나, 미래물포럼 등 부대행사 진행. 대학(원)생 논문공모전과 환경산업 청년 일자리 박람회도 함께 열려 물산업 관련 인재 발굴 및 채용 연계 지원.</li> <li>-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개막식에서 AI 등 유망 물관리 분야 기술개발 확대와 창업부터 기술실증, 해외수출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 발표.</li> </ul>
	<p><b>☐ 탄소중립기본법 등 환경 분야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03.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과 국가가 공동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li> <li>-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에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여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보호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물산업법, 수자원법, 빛공해 방지법 등도 함께 개정.</li> <li>-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b>한-IEA 에너지효율 협력 워크숍 개최...에너지안보·탄소중립 공조 논의(2026.03.1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7일 서울 앰배서더서울폴만호텔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에너지효율 협력 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관계 기관 약 20여 명 참석.</li> <li>- IEA 글로벌 에너지효율 동향, 국내 에너지효율 정책,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우수사례 등을 논의. IEA는 한국의 전기화율(26.4%)과 산업 전기화율(42.4%) 등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 자료 소개 예정.</li> <li>-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효율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 강조.</li> </ul> <p>□ <b>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블록형 감축 경로' 포함 논란 확산(2026.03.1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설문에 '블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해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 블록형은 초기 감축을 늦추고 후반부에 급격히 감축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2035년 NDC보다 후퇴한 방안이라는 비판 제기.</li> <li>- 의제숙의단이 지난 2월 워크숍에서 26명 중 18명이 블록형 제외에 찬성했음에도 공론화위가 이를 다시 선택지에 올리면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 발생. 기후위기비상행동, 여성환경연대, 전농, 민변 등이 잇따라 규탄 성명 발표.</li> <li>- 공론화위는 오는 19일 5차 회의에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시민대표단 340명은 이미 온라인 학습을 시작한 상태. 4월 안으로 공론화 절차를 마치고 국회 기후특위에서 상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마무리 계획.</li> </ul>
<p>지자체</p>	<p>□ <b>거제시, 3월 말까지 찾아가는 탄소중립 홍보부스 운영(2026.03.1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거제시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3월 말까지 일운면사무소와 수양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탄소중립 홍보부스' 운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유도</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와 기후위기 인식 제고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시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 및 접수 진행.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방법도 소개해 시민 참여 독려.</li> <li>- 거제시는 향후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계획.</li> </ul>
	<p><b>□ 전주시, 공공부문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탄소중립 실천 선도(2026.03.1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전주시가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친환경 현수막 사용 의무화 결정. 휴비스,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재활용센터 다시봄 등과 업무협약 체결.</li> <li>- 현수막 한 장 소각 시 약 6.28kg의 이산화탄소 발생. 이달부터 본청 및 산하 전 부서에서 기존 폴리에스터 대신 분해 속도가 빠르거나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원단으로 현수막 제작 의무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상업용까지 단계적 확대 방침.</li> <li>- 우범기 전주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향한 실질적 출발점이라며, 전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의 모범사례가 되겠다는 의지 표명.</li> </ul>
	<p><b>□ 충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 739명 선착순 모집(2026.03.1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충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참여자 739명 선착순 모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대상, 친환경 차량 및 법인·단체 차량 제외.</li> <li>- 참여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누리집에서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 업로드로 완료. 감축 실적은 참여 전후 일평균 주행거리 비교로 산정하며 12월 인센티브 지급.</li> <li>- 지난해에는 주행거리 감축한 258명에게 총 1,882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 실적.</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b>삼척시, 탄소중립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2026.03.1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 삼척시가 시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과 지역 맞춤형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6 삼척시 탄소중립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사업' 추진. 공모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며, 삼척시 주민등록자 및 관내 직장·사업장 소속자, 강원대 삼척(도계)캠퍼스 재학생 참여 가능.</li> <li>- 공모 분야는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탄소중립 관련 전 분야.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 친환경 소비 생활,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확대, 폐자원 재활용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 자유 제안 가능.</li> <li>-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20일 최종 결과 발표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는 시상과 함께 향후 시 탄소중립 정책 반영 방안 검토.</li> </ul>
	<p>□ <b>인천시, 시민 참여 기반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 추진(2026.03.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2045 탄소중립' 비전 아래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 기후 적응, 국제 협력 등 4대 정책 15대 과제와 154개 감축사업 추진 중. 매달 15일을 '인천 1.5° C 기후실천의 날'로 운영하며 월별 탄소중립 실천 과제 안내.</li> <li>- 25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기후행동 실천단' 운영,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한 에너지 절감 가정 및 주행거리 감축 차량 대상 인센티브 지급. 초·중학교 10개교 대상 '탄소중립 실천학교' 컨설팅 신규 추진.</li> <li>- 청년 서포터즈 홍보 활동,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인천 탄소중립 포털' 운영 등 다양한 참여형 정책 확대.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 지속 확대 계획.</li> </ul>
	<p>□ <b>청도군, 탄소중립·녹색경제 대전환 선언 기념행사 개최(2026.03.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 청도군이 13일 청도천 둔치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 기념 및 탄소중립을 통한 녹색경제 대전환' 기념행사 개최. 이만희 국회의원, 이철우 도지사 등 주요 인사와 800여 명의 군민 참석.</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새마을운동의 시대적 역할 재조명. 재활용품 적재 차량 순회 프로그램 진행, 청도군새마을회는 2000년부터 26년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추진.</li> <li>- 김하수 청도군수는 '탄소중립 새마을'을 핵심 가치로 삼아 녹색경제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li> </ul>
	<p><b>□ 홍성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26일까지 접수(2026.03.1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성군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 홍성군 등록 차량 대상으로 총 235대 선착순 모집.</li> <li>-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후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올해 10월까지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지급.</li> <li>- 감축 실적 산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과거 누적 주행거리 기준으로 참여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식.</li> </ul>
	<p><b>□ 대전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6,112명 선착순 모집(2026.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6,112명 선착순 모집. 대전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자 대상.</li> <li>- 참여 신청은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접수. 법인·단체 소유 차량, 사업용 차량,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 1차 모집 미달 시 4월 6~10일 추가 모집 예정.</li> <li>-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친환경 운전과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차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한 제도라며 시민 참여 당부.</li> </ul>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p>☐ <b>경주시, 'AI 미래 모빌리티 협약형 특성화고' 유치 추진(2026.03.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시가 경북도교육청, 신라공업고, 에코플라스틱·발레오 등 50여 개 기관과 함께 'AI 미래 모빌리티 협약형 특성화고' 지·산·학 업무협약 체결. 전동화·지능화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한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교육-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구축 목적.</li> <li>- 교육부 공모 사업인 '협약형 특성화고'는 전국 10개교 이내 선정 예정이며, 선정시 5년간 35억~45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지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설계, 기업 참여형 실무교육 및 채용 연계, 교육시설·장비 공동 투자 등 공동 추진.</li> <li>- 주낙영 시장은 지자체·교육·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이 머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 표명.</li> </ul>
	<p>☐ <b>진천군, AI·XR 기술 활용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2026.03.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진천군이 인공지능(AI)과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가상공간에 상담센터 등을 구축하여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위기 청소년 대상 온라인 상담,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초소양 및 진로 교육 등 제공.</li> <li>- 관련 XR 기기 10대를 구입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중 고위기 분류 대상자에게 무상 대여. 1인당 최대 대여 기간은 6개월로 설정.</li> <li>- 진천군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단계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b>전남도, 섬 지역 어르신 대상 AI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2026.03.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2,600만 원 확보. 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4개 군의 섬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 대상으로 AI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li> <li>- 주요 서비스는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24시간 생활돌봄, 비대면 심리상담, 케어푸드 제공 등으로 구성. AI 돌봄로봇이 어르신과 대화하며 복약 알림, 안부 확인 등 일상 돌봄을 지원하고 위기 신호 감지 시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체계.</li> <li>- 전남도는 지난해 스마트 사회서비스 공모사업에도 전국 유일 선정되어 AI 반려로봇 활용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 돌봄 모델을 지속 확대 중.</li> </ul>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b>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국가산단 탄소중립 산단 전환 본격화(2026.03.1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9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설명회 개최. 총 1,302억 원(국비 500억 원) 규모로 30MW 태양광 발전 설비, 25MW·60MWh ESS 기반 가상발전소(VPP), 웨어링 ESS 전력 관리 체계,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인프라 등 구축 예정.</li> <li>- 산단공은 올해 1월 구미 탄소중립산단센터를 신설하고 ESS 발전소 구축, 에너지 메가스테이션 조성, 공공주도 태양광 발전 확대 등 추진 중. AI 기반 전력 수요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전력거래 플랫폼 설계와 관련 인허가 절차도 준비.</li> <li>- 사업 완료 시 약 171억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약 37만 tCO<sub>2</sub> 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구미국가산단은 재생에너지 생산·저장·전력거래까지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국내 탄소중립 산업단지 대표 사례 목표.</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b>의왕도시공사, 탄소중립 경영 성과로 '저탄소 인증' 획득(2026.03.1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왕도시공사가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과 친환경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도시재생안전협회 주관 '저탄소 인증' 획득. 16일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 개최.</li> <li>- 저탄소 인증은 탄소감축 실천 수준, 친환경 운영체계, 지속가능경영 기반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인증. 공사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고효율 냉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등 지속 추진.</li> <li>- 노성화 사장은 친환경 시설 운영과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서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영 강화 의지 표명.</li> </ul>
	<p>□ <b>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현장 방문(2026.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2일 대구정책연구원 내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 상황 점검. 센터는 2022년 7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후·환경 분야 전문 연구기관.</li> <li>- 채수탁 기간(2026년 1월~2028년 12월) 운영 로드맵과 연간 4억 원 규모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li> <li>- 김재용 위원장은 탄소중립이 필수적 생존 전략이 된 상황에서 센터가 대구 지역 특성에 맞는 이행 모델 발굴과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li> </ul>
	<p>□ <b>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의체, 2026년 원팀 다짐(2026.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이 12일 김포시 효원연수문화센터에서 '2026년 제1차 광역-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경기도와 시·군 센터 관계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50여 명 참석.</li> <li>-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 소개, 지역 탄소중립 선도사업 안내, 협의회 협업 과제 논의 등 진행. 센터장급과 실무 직원급으로 나누어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직급별 현안 심도 있게 논의.</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재성 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li> </ul>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b>월스기념병원, 제로퀘스트와 업무협약 체결...탄소중립 실천 본격화(2026.03.1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스기념병원이 넷제로 솔루션 기업 제로퀘스트와 탄소 감축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병원 계단에 탄소 감축 모듈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계단오르기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li> <li>- 두 기관은 지난해 직원 대상 건강 증진 프로그램 '월스건강을 찾아서'를 통해 계단 오르기 부서 및 개인별 대항전을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쉽고 재미있는 탄소감축 콘텐츠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li> <li>- 월스기념병원은 2022년부터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폐기물 줄이기, 온라인동의서 작성, 직원 잔반 줄이기 캠페인 등 친환경 병원 만 들기에 매진.</p> <p>□ <b>현대건설, 8년 연속 CDP '명예의 전당' 수상...탄소중립 이행 역량 입증(2026. 03.1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유일 CDP Korea Awards 기후변화 대응 부문 8년 연속 '명예의 전당' 수상 및 5년 연속 최상위 '플래티넘 클럽' 획득. CDP는 전 세계 약 2만 2,000여 개 기업의 환경정보를 분석·평가하는 대표적 지속가능성 지표.</li> <li>- 현대건설은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콘크리트 개발,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전력중개거래사업 등 추진. 최근 2년간 K-택소노미 기준 녹색채권을 총 6,400억 원 규모로 발행.</li> <li>- 미국 대형원전 기본설계 계약, 텍사스 태양광 발전사업, 신안우이 해상풍력 등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 확대 중.</li> </ul>
대학교	<p>□ <b>전남교육청,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개교 선정...생태전환 교육 본격 추진(2026.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생태시민 양성을 위해 '2026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개교 선정. 신규 28개교와 심화 운영 선도 모델학교 22개교로 구성되어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올해부터 선도 모델학교 대상 '생태전환 교육 수업 공개' 항목 신설, 탄소중립 실천 지표 목표 설정으로 학생 주도 환경 실천 활동 강화 계획. 지난해 우수 사례인 송산초등학교와 영산포여자중학교 재선정.</li> <li>- 전남교육청은 컨설팅, 연수,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생태전환 교육을 확대하고 전남형 탄소중립 교육 체계 강화 방침.</li> </ul>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b>민간기업</b></p>	<p>☐ <b>DH그룹, 전북 부안에 피지컬AI·방산 제조기지 조성...1,500억 원 투입(2026.03.1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와 DH그룹이 부안 제3농공단지에 피지컬AI·방산·수소 산업 제조기지를 조성하는 투자협약 체결. 올해부터 203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500억 원 투자 계획.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원 투자에 이어 첨단산업 벨트 구축에 가속.</li> <li>- 1단계로 900억 원 규모 피지컬AI 스마트팩토리 건설, 산업용 로봇·자동화 부품·드론 및 무인항공 기반 방산 생산라인 구축. 2027년 착공하여 자율주행이동로봇 기반 무인 물류시스템과 디지털트윈 공정 자동화 시설을 2029년 본격 가동 예정.</li> <li>- 2단계로 350억 원 투입한 수소모빌리티 부품 제조공장, 3단계로 250억 원 규모 미래비전 연구단지 조성. 투자 완료 시 직접고용 310명, 간접고용 포함 600~900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li> </ul>
<p><b>대학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p><b>해외</b></p>	<p>☐ <b>주요 AI 챗봇, 폭력 행위 부추기는 답변 제공...안전성 논란(2026.03.1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와 CNN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AI 챗봇 10종 중 9종이 폭력 행위를 만류하거나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퍼플렉시티는 응답 100%에서 폭력 공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딥시크·메타 AI·코파일럿도 90% 이상 위험 요청에 응답.</li> <li>- 캐릭터.AI는 보험사 대표에게 총 사용을 권유하거나 가짜 증거 조작을 조언하는 등 폭력 부추기는 답변을 다수 생성. 챗GPT의 유해 응답 비율은 61.1%였으며, 엔트로픽 클로드는 30.6%로 가장 낮은 수준 기록, 이용자 만류 비율도 76.4%로 최고.</li> <li>-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의 챗GPT 활용 사실과 핀란드 16세 학생의 챗GPT 이용 공격 사건 등 AI 챗봇의 폭력 범죄 계획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li> </ul>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b>AI 위게임 시뮬레이션서 100% 핵 위협 발생...알고리즘 구조적 문제 지적(2024.03.1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킹스 칼리지 런던 케네스 페인 교수 주도 연구에 따르면 GPT-5.2, 클로드 소넷4, 제미니3 플래시 등 최신 LLM을 21개 위기 시나리오에 투입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핵 위협 발생. 전술 핵 사용 문턱을 넘은 경우 95%, 전략적 핵 위협 확대 76%로 AI 모델들이 핵무기를 합리적 전략 옵션으로 취급.</li> <li>- 스웨덴 국방연구소(FOI)와 랜드코퍼레이션 연구에서는 AI가 적군 타겟팅 시스템을 교란해 민간 시설을 군사 목표로 오인 공격하는 사례 확인. 훈련 데이터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오류율이 25~50%에 이를 수 있다는 컴퓨터 과학 연구 결과도 제시.</li> <li>- 자동화 편향과 결합 시 인간 지휘관이 AI의 낮은 신뢰도 타겟도 승인하게 되어 민간인 사상자 증가와 국제인도법 위반 우려 확산. 전문가들은 인간 최종 결정 원칙 강화와 모델 강건성 테스트를 강조하나 미국의 부정적 입장으로 UN 차원의 논의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li> </ul>
기타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